

어항협회, 국가어항 건설자료 조사 및 발간용역사업 수주,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2004년도 연구용역과제인 국가어항 건설자료 조사 및 발간용역사업을 수주,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과업내용은 105개 국가어항의 년도별 투자실적, 각 항별, 시설별 표준 단면도 작성, 각 항별, 시설별 피해 현황을 정리하여 어항건설편람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 과업이 마무리되면 105개 국가어항에 대한 개요, 시설현황, 피해현황 등 어항 개발과 관련된 현황자료가 정리되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업무 등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며, 장래 어항정비,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이다.

왕돌초 주변 침체어망

지난해 실시해 어족자원 보호에 큰 효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왕돌초 주변 수역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동해 수산자원 보고인 왕돌초 주변 외해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 한국어항협회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1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 22,000ha에서 침체어망

3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항협회는 24일 후포수협 회의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단체, 어업인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해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 22,000ha 205톤, 울진군 주관 1차 사업 13,700ha 107톤, 2차 이월사업 11,650ha 118톤(2004. 5.21 준공)을 인양하였다.

강릉 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항포구내에 모래가 쌓여 어선피해와 조업차질을 빚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해안 각 시군과 어업인들에 따르면 동해안 10여곳의 항포구에서 해류에 따른 모래유입으로 항포구 매물현상이 나타나 어선 훼손과 사고, 조업차질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강릉 심곡항의 경우 지난 96년 방파제 건설 당시 수심이 11m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연안에서 밀려드는 모래와 토사가 쌓이면서 평균 수심이 0.5~2m 안팎에 불과하다.

항구에 밀려든 모래를 준설해 쌓아 둔 모래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지난 99년 방파제가 준공된 안인항도 항구내 모래 유입 현상으로 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은 스크류가 모래에 닿아 빈번한 고장을 일으켜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이외 사천항, 남항진 대진항 고성 빈암항 등에서도 모래가 유입, 퇴적돼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받고 있는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 항·포구에서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9회 바다의 날 행사 열려

캐치프레이즈-“가고 싶은 바다, 살고 싶은 어촌, 꿈이 있는 내일”

는 5월31일 제9회 바다의 날 행사는 ‘어촌과 관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바다, 삶의 터전인 어촌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뤄진다.

“가고 싶은 바다, 살고 싶은 어촌, 꿈이 있는 내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이제까지의 향만을 중심으로 한 행사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에게 어촌 관광지로 친숙한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점추진 정책과제인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어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바다의 날 기념 어촌체험여행 프로그램 마련하여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념식행사 중에는 자율관리어업 결의문 낭독에 이어 전국 각 해역을 대표하는 청정 바닷물을 하나로 모으고 이 물에 희망을 상징하는 치어를 방류하는 ‘화합과 희망의 바다’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 날 행해지는 정부포상에는 한국근대문학사에 해양문학이란 장르를 태동시킨 해양시인이자 33년 무사고 안전운항으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故 김성식 선장, 우리 수산물 홍보대사로서 바다사랑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

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가수 ‘바다’ 양등이 포상자로 추천되었다.

이 밖에도 전국 연안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래탐사, 해양수산 체험행사, 수산종묘 방류행사, 해양수산 과학전시회, 바다퀴즈대회, 일일 해양학교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보령시 주관으로 바다의 날을 전후하여 갯벌체험, 도서탐방,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다사랑 사진전 등 바다의 날 기념 행사가 풍성하게 거행된다.

바다의 날은 1996년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